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화학과	이름	장xx
파견국가	스웨덴	파견도시	Örebro
파견대학	Örebro University	파견기간	1학기
귀국여부	'아니오'인 경우 귀국예정일을 알려주세요. 귀국함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스톡홀름에서 기차로 2시간 거리인 Örebro에 있는 대학은 학생 수가 대략 천명 정도로 적은 편이고 캠퍼스 크기는 순천향대학교와 비슷하다. 건물은 신설 건물이고 건물높이는 대부분 3층 내외이다. Ica 라는 큰 대형마트는 학교에서 도보로 15분 내외이다. 학교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Örebro 시내로 버스타고 10분정도 걸린다. 시내에는 쇼핑몰도 있고 아시안 마트도 있다. 버스비는 2019년기준으로 21크로나로 한화 2500정도이다. 버스는 3시간내에 환승이 가능하다. 버스는 어플이 있어서 결제도 가능하고 어플을 보여주면된다.</p>
2019-1학기 수업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p> <p>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Analytical Chemistrty – 분석화학</p> <p>다른 코스와 다르게 half course로 2달동안 진행하는 수업이다. 매 실험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교수한테 검사를 맡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고 통과를 받아야 한다. 실험 수준과 리포트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이다. 시험도 범위가 많고 외워야 할 것이 많다. 시험을 2번이나 봤는데 떨어져서 드롭했다. 수업은 교수가 피피티로 수업자료를 준비하여 만들고 자료는 blackboard 라는 인트라넷 같은 곳에 올려준다. 실험은 조별로 진행하는데 조는 자신이 하고싶은 사람과 정한다. 교환학생은 나포함 2명이고 나머지는 다 스웨디시였다. 책은 도서관에서 이용가능하다. 한국에서</p>

공부하던 전공책을 가지고 가면 좋다.

Visual communication

시각 디자인에 관련한 수업이며 교양과목으로 들었다. 수업은 피피티로 수업하고 과제는 조별로 주제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해서 발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험은 필기 시험 대신에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리포트 분량은 a4 용지 5페이지 정도이다. 이 수업을 듣는 대부분 학생들은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전공자들이다. 하지만 책이 필요하므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공부를 했다.

Outdoor Activity sports science

아웃도어에서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수업으로 모든 수업은 야외에서 이루어 진다. 첫 주는 학교 주변의 산에서 불을 피우는 방법과 뗏목으로 좋은 것들을 배운다. 그리고 매 주마다 스웨덴 곳곳에서 아웃도어를 즐기는 캠핑을 간다. 첫째 주는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했고 둘째 주는 Horse back riding 셋째주는 스웨덴 초등학생들과 함께 야외에서 수업을 직접 organize 하고 즐기는 것이다. 시험대신 소감문을 쓰는 리포트로 대체된다. 수업 내내 모든 친구들과 친해졌고 교수님도 정말 좋았다. 한 달간 수업이 끝났어도 교수님 집에서 바비큐파티도 같이 즐겼다. 이수업은 대부분 교환학생들이 많이 들었다.

Diversity in the classroom

보통 이 수업은 유아교육이나 교사가 되고싶은 학생이 듣는다. 많은 교환학생들이 이 수업에 참여한다. Diversity 가 인종 뿐 아니라 가정환경, 교육,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한다. 수업이 끝난 후 세미나는 필수이며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면 대체과제를 해야한다. 수업은 보통 ppt로 이루어지고 자료들은 마찬가지로 blackboard에 올라와있다. 거의 토론형식이므로 수업 자료를 미리 읽어가야한다. 시험대신에 리포트로 대신한다.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3주간 진행되며 각 그룹별로 나누어서 조별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내가 속한 조에는 나 포함 여자가 2명뿐이고 9명 정도가 모두 남자였다. 심지어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못알아들어서 초반에 되게 낮을 가렸다.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는 많은 게임도 했다. 또한 매 주에 컨셉이 정해져서 파티가 열리는데 그에 따라 복장을 하고 파티에 참여한다. 그런데 오리엔테이션프로그램이 정말 뻘뻘하기 때문에 조금 피곤해서 마지막에는 스킵한 것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만큼 친해질 기회가 많았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1월 19일날 도착했을 때 해가 아침 10시에 떠서 3시에 진다. 떠있는 동안 구름에 가려 해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눈이 많이왔다. 4월에도 추운 편이라 코트를 입었다. 5월 1일에도 눈이 왔었다. 5월부터는 날씨가 정말 좋았다. 하늘도 푸르고 공기도 맑고 습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5월 쯤이면 낮에는 더워서 반팔입어도 되고 일교차가 큰편이다. 그리고 눈이 많이오기 때문에 부츠는 미리 챙겨가는게 좋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비행기가 저녁에 도착했기 때문에 스톡홀름에서 1박을 하고 학교로 가는 상황이었다. 저녁 10시쯤이었고 스톡홀름 중앙역에서 10분정도 걸리는 호텔을 찾아 가는 도중 길가에 어떤 사람이 옷에다가 케첩을 뿌렸다. 그리고 길가는 사람들이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 스웨덴의 첫 인상이 좋지 않았다. 호텔을 찾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길에서 다행히 한국분을 만나서 호텔을 찾고 안정을 취하고 그 다음날 학교로 갔다. 학교가 있는 Orebro는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한 편이고 인종차별을 당한적이 없었다. 그리고 소매치기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p>
숙소	<p><i>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i></p> <p><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기숙사는 캠퍼스 내에 있으며 방은 혼자서 쓰되 주방은 코리더라고 하는 공용 주방이 있고 빨래는 보통 건물 1층에 있으며 예약을 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방 키는 열쇠로 되어있고 맨 아래층 키는 태그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키를 깜빡하고 못가져오면 건물밖에서 누군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한다. 비밀번호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사는 곳이라서 안전한 편이다. 그리고 코리도에서 8명이 생활하는데 1주일마다 당번을 정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를 한다.</p>
식사	<p><i>학교 Meal Plan (<input type="checkbox"/>) 학교식당 개별이용 (<input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i></p> <p><i>외부식당 (<input type="checkbox"/>) 직접 요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i></p> <p><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주로 ica 라는 마트에서 사먹었고 파스타나 볶음밥 위주를 해먹었다. 마트 물가는 한국이랑 비슷하나 치즈나 유제품, 파스타 등은 싸지만 과자나 과일은 그렇게 싸진 않다. 아시안마트에서 간장, 떡, 라면을 팔기 때문에</p>

	사서 찜닭도 해먹고 떡국도 해먹었다.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학교 내 기숙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버스를 탈 일은 없지만 시내까지 오갈 때 버스를 이용하면 21크로나로 2500 정도 한다.</p> <p>그리고 orebro에서 스톡홀름까지가는 기차역에서 버스를 타면 편도 이만원 넘을때도 있고 적을때도 있는데 그정도이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갈 때 35만원(LOT항공) 올 때 43만원 (이스탄불 항공)	국제학생증을 발급받아서 키세스 사이트에서 국제학생증 발급받은 사람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Fees	<p>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p> <p>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p> <p>오리엔테이션 900kr</p>	한화 약 11만원
보험료	<p>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p>	<p>국내에서 삼X화재 유학생 보험을 들었고</p> <p>보험은 대략 25만원 정도 들었다.</p>

숙소	한학기에 16500kr	약 206만원
식비	한달에 장보면 30만원 정도 한다.	30*5=150 만원
교통비	버스 1회당 21크로나	3시간동안 환승 가능
책값	X	
기타1	라플란드 오로라 여행	대략 50만원 이상 (식비, 장비 포함)
기타2	개인 여행	400만원 이상
합계		920만원 이상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비자 발급은 합격자 발표나자마자 최대한 빨리 하는게 좋다. 그리고 부츠는 미리 챙겨가면 좋고 장갑, 목도리, 히트텍 상하의 둘다, 수면양말 챙기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항공편은 빨리 살수록 좋다. 그리고 노트북은 필수이다. 수업때도 노트북이 필요하고 리포트를 작성할 때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ESN OREBRO BUY AND SELL이라는 페이지에서 전 학기 학생들이 두고 간 것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 결제 가능한 카드를 만들고 최소 두 개 이상은 가져가는 것이 좋다. 환전은 많이 할 필요 없다. 모든 곳에서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어는 회화 위주로 공부를 해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여행 갈 경우에는 자물쇠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날씨는 봄/가을 옷과 겨울옷, 여름 반팔티몇장 정도 가져가면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ESN 이라고 유럽 교환학생들을 위한 회원 같은 것인데 삼만원 이내로 가입비가 들지만 비행기값이나 숙소, 입장권, 수화물 추가 등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한 학기가 짧은 듯 하지만 딱 살기에 적당하다. 일단 일년의 반이 겨울이다보니 겨울을 또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스웨덴에 오기 전에는 아는것도 없었고 관심도 딱히 갖고 있지 않았지만 북유럽에서 한번쯤은 살아보고 싶어서 선택을 했다. 그리고 교환학생들을 위한 학교에서 여행프로그램이 있는데 러시아투어, LAPLAND 투어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나는 LAPLAND를 갔는데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맨 위쪽 지역에 경계없이 살고있는 SAPMI 족의 문화를 체험하고 개썰매, 오로라 보는 프로그램이었다. 살면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개인적으로 가는 것보다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 것이 비용도 저렴하고 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착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많은 친구들을 만들 수 있다. 나는 내성적인 편이고 영어도 잘 못해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주변 친구들이 잘해주었고 대화도 많이 하다보니 영어도 자연스럽게 늘었다. 그리고 수업은 그렇게 빡빡하지 않다. 일주일에 수업이 보통 두번에서 세번정도 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는 여행을 갈 수 있다. 학기가 끝나기 전에 여행을 최대한 많이 다니는 것이 좋다.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백팩만 들고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한국보다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아오는 것도 중요하다. 교환학생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가보고 싶었고 준비하는 기간도 오래 걸린다. 대학 생활하면서 가장 해보고 싶은 목표였다. 외국에서 수업도 듣고 친구도 사귀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 하다보니 겁도 좀 사라지고 견문이 넓어진 것 같다. 그리고 여행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파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비자만 있다면 개신문 전망대, 대부분의 박물관들이 무료이기 때문에 뽕을 뽑는 것이 좋다.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는 해외에 가는 것이 두려웠고 외국인의 입장이 되어본 적이 없기에 무관심했지만 내가 직접 겪어보니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함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LAPLAND 오로라</p>	<p>코리도 부엌</p>
	
<p>코리도 복도</p>	<p>방</p>



파리 여행



스톡홀름 여행